

영업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가는 길

김경배 실천문학 영업이사

이 부장님, 간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 서재로 나와 망연히 담배를 태우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하여지자 나는 베란다의 창문을 열어봅니다. 조금은 서늘한 새벽 공기가 송송거리며 들어와 나를 흔들더군요.

송화가루 날리는 산기슭 아래, 감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감나무 숲속에서 흐릿한 영상의 두 중년의 사내를 검정색 교복을 입은 중학생인 듯한 남자아이가 따라나오고 있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촉촉한 대지엔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감꽃들이 용단처럼 깔려 있습니다. 호탕한 웃음을 메아리처럼 남겨놓고 중년의 사내들이 헤어지자 아이가 말하더군요.

“아버지! 왜 2백만 원이나 싸게 파셨어요?”

그러자 한 아저씨가 빙긋 웃으며 말을 합니다.

“보긴 제대로 보았구나!”

“왜 싸게 파셨냐고요?”

소년의 다그침에 아저씨는 그제야 정색을 합니다.

“저 박 사장이 작년 거래에서 1백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너도 알겠지만 우리가 판 것보다는 실수확률이 적었지. 장사란, 이런 생물 장사는 누군가 나를 즐겁게 찾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의 물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나도 만족하고 상대방도 만족할 수 있는 선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너무 많은 이익을 가지려 조바심을 내는 것은 좋지 않아. 과욕이 언제나 화를 부르는 것이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락을 장사꾼에게 넘기면서 가마니 당 근수 합산을 잘못했다고 아이를 뒤주에 가두어놓기도 하셨던 냉정한 분. 당신 살아생전에는 친해질 수 없었던 나의 아버님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부터 나는 아버님의 그늘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그늘은 한해 한해가 거듭될수록 감탄과 감동을 만들면서 종내는 그리움과 존경심을 갖게 하였지요.

그 아버님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하신 식견과 생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신의 죽음 이후에 보여주신 아버님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미약하고 가족들에게는 냉후하였으나,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넉넉하게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아참, 이 부장님!

요즘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어제 손수건은 온전하였는지요? 우리같이 비만인 사람들에게 여름은 언제나 버겁고 짜증스런 계절이지요. 의도하는 일들이 너무 질퍽거리고 있어서 곱게 접혀 살포트 향기로워야 할 손

수건이 어찌면 더 후줄근하고 초라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여 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요. 항상 불경기라고,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보겠다고, 대역점으로 할인마트로 인터넷서점으로 우르르 몰려다녔지요.

꽃이 피어 있는 감나무숲 속을 걸어가면서 늦가을 수확할 감이 해가 뜨는 동쪽 나뭇가지에 몇 접, 해가 지는 서쪽 나뭇가지에 몇 접, 감나무 이파리에 가려 보이지 않는 속감과 상단부 감이 몇 접. 지형에 따라, 지질에 따라, 대지의 물기가 있고 없음에 따라, 나무의 크기와 수종에 따라, 한 그루의 감나무에서 수확할 감의 갯수를 가감하고 감나무숲 전체에서 몇 동 몇 접을 수확할 것인지 산출하던 그 계산법을 환기하여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설픈 목적을 위해 맹목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한 변별을 더 강하게 가져야 했다고 이제서야 반성하여 봅니다.

최근 몇 년, 출판사의 성장 형태가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고 있는 요즘, 저는 세상과 생활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을 기다리며 농사를 지으셨던 우리네 아버님들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의 자손들인 우리들은 자동차를 몰며 핸드폰을 들고 목에 두른 넥타이를 바람에 나부끼며 유목민들처럼 떠돌아다녀야 하는가 봅니다.

|

그러나 이 부장님!

불혹을 바라보는 지금, 저는 떠돌며 자신의 만족을 찾는 것보다 그 어떤 공간을 누구나 들어오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잘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즐거워서 술도 먹고 떡도 먹고 흥겨워서 춤도 출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너그러하게 비워놓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려가 볼까 합니다.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기도 하고, 허공을 가르다 공기 중에 스며들기도 하고, 용소에 들어 거세게 휘몰아치기도 하고, 잔잔한 물살 위에 누어 창공을 올려다보기도 할 생각입니다. 좋다 나쁘다 개념 짓지 않고 사람과 사람끼리 부대끼며 이 업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늘과 산과 바다를 구름처럼 부유해 볼까 합니다. 소노 아야코 씨가 쓴 《중년 이후》는 이런 발상들을,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

이 부장님!

20대나 30대 혹은 40대에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관점은 분명 다르겠지요. 푸른빛이 짙어져가는 북한산을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의 의미는 개개별로 다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신뢰가 한결같은 우리들 세상에서 사람의 신념과 다양하고 아름다운 정신들이 빛을 발하는 출판계에 저는 흠뻑 매료되어 있습니다. 술 출판사에서 발행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보면서 인식한 세월이나 인내의 힘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이런 모습이거나 하는 것들. 치열하게,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

이 부장님!

당신의 열정과 정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당신은 존중되어야 하고 당신은 이미 세상의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